제13강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

(1교시)

선운사 동구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오히려 남았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1. 미당 서정주에 대하여

1915년 전북 고창의 선운사 옆 동네에서 태어났다. 중앙불교전문에서 공부를 하고,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시집 『화사집』(1941)을 시작으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그는 한국 현대 시단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일제 시기의 친일 경력 등으로, 문단과 사회에서 많은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2. 선운사라는 곳

선운사(禪雲寺)는 동백꽃으로 이름이 났지만, 미당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洞口)」가 새겨진 시비를 보러 가는 재미에 설레는 이도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리, 그가 태어난 마을에는 이제 미당문학관이 들어서 있는데, 넓은 마당에 시원스레 자리 잡은 이 집을 둘러보는 일 못지않게, 절 입구의 작은 시비가 도리어 즐거움을 준다.
선운사의 동백꽃은 동백이 필 수 있는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해서 관심을 끈다. 언제든 한두 송이씩은 달려 있거니와 4월 초에 활짝 핀다.
다만 그 때 맞춰 선운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아쉬움은 그 뿐만이 아니다. 대웅전 뒤로 산자락에 군락하는 동백꽃을 보호하려 쳐놓은 철조망 때문에 위용한 자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나무 아래로 소요하면서도 더불어 나무를 보호할 방법은 없으려나.
어쨌건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많은 이들이 철 되면 잰 걸음을 옮기는 것인데, 아무렴 그렇게 된 데는 미당의 시가 한몫했음 또한 사실이다. 그런 까닭일까, 시비는 제목처럼 선운사 동구에 섰고, 동백꽃 피는 철과 상관없이 미당의 친필이 동백꽃 대신 다정스레 다가온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3. 미당의 선운사 앞 시비(詩碑)

선의 구름일까, 선승(禪僧)의 또 다른 이름일까, 이 나라에 절도 많지만, 우리말의 절묘한 울림을 잘도 갖춘 '선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이 선운사이다. 시인 미당은 좁은 흙먼지 길을 무릅쓰고, 허름한 초가집 민박이며 선술집이나 있었을 60년대의 어느 날 이곳을 찾았던가 보다. 그 때 그가 썼던, 그래서 선운사 입구에 새겨진 「선운사 동구」는 이렇다.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읍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읍디다

문단에 널리 회자된 바, 천하의 여성 미식가가 미당이다. 잘 생기고 재치 넘치는 이 시인이야말로 그럴 자격이 있었다. 거기서 시가 태어났다. 그러기에 그의 시에 등장하는 여성은 누구이든 그의 눈을 거쳐 마음과 몸으로 하나 되는 이들이다. 동백꽃이 어느덧 막걸릿집 여자로, 그 여자가 부르는 육자배기로, 육자배기의 쉰 가락으로, 결국 생애의 쉰 목소리가 나오는 고비로 넘어간다. 절묘함의 극치이다.

4. 달라지는 표현

그런데 '미당시전집'을 읽다가 눈을 다시 씻어야 할 일이 생겼다. 여섯 줄에 불과한 시에서 선운사가 지닌 소박함과 미당 특유의 위트를 만끽하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단 한 단어, 곧 다섯째 줄의 '상기도'가 주는 시적 울림에 떨었던 것인데, 전집에는 이 말이 '오히려'로 바뀌어 있다.

미당이 그렇게 고쳤을까? 물론 이 구절 이외에도 바뀐 부분이 있으나, 자타가 공인하는 시의 장인(匠人)이 손 댄 것 치고는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상기도'를 '오히려'로 바꾼 데에는 이 말이 강원도나 함경도의 사투리라는 데 까닭을 둘 수 있겠다. 전라도에서 쓰지 않는 말을 여기 집어넣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걸리 집 여자의 쉰 목소리에서 희미한 기억의 지난 봄 동백꽃을 떠올리는 시인의 가슴을 '상기도'라는 말 이상으로 적실히 표현해 줄 단어가 없었을 텐데.

5. 「선운사 동구」의 매력

선배 시인 한 분이 이 시에 대해 이렇게 해설을 썼다.

나는 무릎을 쳐 감탄하거니와, 정작 동백이 피어 있는 곳은 선운사 동구 밖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 속이 아닌가. 절집이 아닌 저잣거리, 그것도 온갖 삶들이 머물고 떠나며 기쁨과 슬픔을 술상머리 닳도록 묻히는 막걸릿집, 거기다가 그것들을 대거리와 청승으로 온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통 받아내어 제 삶으로 만드는 주막집 여자, 결정적으로는 그런 섦을 노래로 풀어내는 육자배기 가락, 그 속에 작년의 동백꽃이 목이 쉰 노래로 남아 피어나더라고, 그러나 남의 말을 전하듯이 자신은 슬쩍 비켜서서 "남았습디다"라고 말함으로써 감격과 비탄을 묻어둔 채, 읽는 이에게 한 소식을 건네고 있는 것이다. (박영근, 『오늘, 나는 시의 숲길을 걷는다』에서)

이런 상념에 젖어 찾아가는 선운사는 송창식의 노래 「선운사」와 어울리면서 또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설운 날에 말이에요…"라고 시작하는 그 노래다. 오래 전 어느 자리에서, 시를 쓰는 내 친구 안도현의 이 노래를 듣고, 나는 단박에 배워 마치 내 노래처럼 부르곤 한다.

6. 참고문헌

김우창,「한국시와 형이상」,『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김화영,『미당 서정주의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4
송하선,『미당 서정주 연구』, 선일문화사, 1991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